Episode\_1

★

사람의 손때나 피가 묻은 물건에 영혼이 깃들면 도깨비가 된단다. 숱한 전장에서 수천의 피를 묻힌 검이 제 주인의 피까지 묻혔으니 오죽 했을까?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Zero)로 돌아가 평안 하리라. 고약한 신탁이 아닐 수 없었지. 그렇게 불멸로 다시 깨어난 도깨비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도 어딘.. 왜 웃고 지랄이여 이 썩을 것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신부를 찾고 있는데 그 신부가 바로 나다. 그럴라고?

내 이래 봬도 소싯적에 남자 여럿 울렸다. 괜히 다음에 왔다가 이 할망구(할머니) 어디 갔나 놀래지나 말어.

부럽다.

내가 노망이지, 미혼모 앞에서 할 자랑이 아닌데.

칫. 못됐어.

시금치 값 깎아 줘, 배추 값 깎아 줘, 내가 뭐가 못됐어? 너 버리고 도망간 그 새끼가 못됐지.

그건 또 그러네. 근데 그 얘기 너무 슬프다

슬플 것도 쌨다(많다 / 쌓이다→쌔다; ‘쌔고 쌨다’로 자주 쓰임).

지독히 낭만적인 저주잖아요. 죽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야 한다는 게. 신 못됐다.

신은 원래 못됐어. 이기적이고, 질투 많고, 지만 알어 지만.

어떤 놈이랑 똑같네. 에휴 그만 갈게요. 많이 파세요. 다음에 왔을 때도 꼭 계시고.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 오면 염원을 담아 간절히 빌어. 혹여(혹시) 어느 마음 약한 신이 듣고 있을 지도 모르니.

★

나라면 추천하지 않겠어. 지금 집을 나가게 되면 지금 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다시는 엄마를 못 보게 될 거고.

당신 뭐야? 한국 사람이야?

보다 복잡한 사람이야. 이제 네 차례야. 또박또박 얘기 해. 입양 했으니 당신은 내 아빠라고 그러니 잘 키우라고. 엄마한테도 얘기 해 도와 달라고 아프다고.

무슨 개소리야 비켜.

그렇게 그어서는 죽진 않고 손만 못쓰게 되니깐 참고 하고.

당신 누구야?

눈 피하지 말고 또박또박 할 수 있어?

그러다 맞아 죽으면 당신이 책임 질 거야?

그래서 갈비뼈 부러뜨려 줬잖아.

이건 도시락, 얘기 끝나면 학교 가. 수학 문제 17번 답은 2가 아니라 4야. 그거 하나 틀리길래.

당신 대체 누구야?

★

NAR 그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며 빛이자 어둠이다. 그리고 한때 인간 이었다. 백성들은 그를 신이라 불렀다. 시뻘건 피를 뒤집어 쓴 채 적을 베고 나아가는 그는 문자 그대로의 무신(신하 가운데 무관인 사람: military subject)이었다.

김신 장군 만세! 김신 장군 만세! 김신 장군 만세!

문을 열어라. 개선 장군 김신 장군이시다.

김신은 군장을 풀고 어명(왕의 명령)을 받들라.

네 이놈 다시 지껄여(말하다를 낮잡아 이르는 말) 보아라

정 7품 별장 놈이 감히 상장군의 존명(이름을 높혀 부르는 말)을..

명군의 반주 김신은 군장을 풀고

정녕..

들었다. 기다려라. 되었느냐?

대역 죄인 김신은 검을 물고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라.

혀를 뽑아 버릴라. 대역 죄인이라니, 미쳤느냐? 돌았느냐? 장군.

대역 죄인 김신은 검을 물고 무릎을 꿇고..

폐하를 뵙겠다. 길을 터라.

죄인 김신은..

막아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길을 터라.

네 이놈들! 오직 주군의 이름으로 사흘 밤낮을 싸웠다. 그 생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다. 헌데 니놈들이 감히 니놈들이!

성문을 열어라.

이들 곁을 지켜라 금방 다녀오마.

백성 위에 왕, 왕위에 신,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 저자의 끝없는 승전보(전쟁에서 이긴기록)가 백성을 현혹 하고 저자의 권세가 거듭 왕실을 조롱하니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NAR 그는 적의 칼날을 정확하게 보았지만 자신을 향한 어린 왕의 질투와 두려움은 보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겨누어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정녕 이렇게 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더는 오지 마라. 멈추어라. 그게 뭐든 멈추어라. 그 자리에 멈춰 역적으로 죽어라 그럼 너를 뺀 모두를 살릴 것이다. 허나 단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 온다면 네놈의 걸음 하나 시선 한번에 모두를 죽여 네놈 발치(발이 있는 쪽)에 깔아 줄 것이다.

가세요 장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마마 저는

압니다. 진정 다 압니다. 혹여 이게 마지막 이면 이 또한 제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 가세요 멈추지 말고 폐하께 가세요. 장군.

역모다 저 집안의 그 누구의 숨도 붙여 두지 말라 어명이다.

멈추어라. 뭣들 하느냐 죄인을 꿇려라.

장군. 폐하 어찌 이러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언제 네놈들 편을 들겠다더냐?

죄인의 눈빛이 형용하니 어심이 어지럽다. 반드시 참 하라

그대의 일이 아니다.

장군 장군 장군 장군.

마지막을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상장군의 명을 받듭니다.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그 누구도 반역 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들판에 버려두어 들짐승과 날짐승의 먹이로 두라. 금수(동물)의 허기(배고픔)를 달래는 딱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어명이다.

NAR 그 누구에게도 빌지 마라. 신은 듣고 있지 않으니. 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오시(옛날 시간 표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그는 자신이 지키던 주군의 칼날에 죽었다.

★

아씨 이런 미친 새끼가 눈깔이 무슨 장식이냐? 뒤질라고.. 너 이 새끼 뭐야?

멧돼지.

뭐?

너는 멧돼지를 받은 것이다.

괜찮으세요? 신고해 드릴까요?

제가요, 멧돼지를 쳐가지고요. 그러니깐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 나와가지고..

멧 멧돼지요 강남 한복판에?

여보세요 여기 112지요? 여기 역삼사거리인데요 트렁크에 여자가 죽은 거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빨리 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역삼사거리 횡단보도요)

내가 왜 내가 왜 저기..

황미영 25세 계축(1973년)년 정사월 을사일 신사시 출생 무인(1998)년 을묘월 금요일 08시 32분 사망. 사인 질식사. 본인 맞으시죠? 마셔요. 이승의 기억을 잊게 해 줍니다.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마신걸 후회하게 되겠죠.

어떤 후회든 부디 이승에서만 하시길.

도깨비?

저승사자? 매우 상스러운 갓(조선시대 모자)을 썼군.

★

나으리(나리: 지체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20년 만에 뵙습니다. 그간 무고(사고 없이 평안함)하셨사옵니까?

그대도 무탈(병이나 사고가 없다)하였는가?

저는 많이 늙었지요. 나으리는 여전히 멋지십니다.

별로 안 멋진데?

이놈! 서신으로 아뢰였던(아뢰다:말씀 드려 알리다) 그 손주 놈 입니다. 인사 올리거라.

이 아저씨 누군데?

네가 덕화구나. 나는 그대의 삼촌이었다가 형제이었다가 아들이었다가 손자가 될 사람이다. 잘 부탁한다.

그게 뭐야 점점 수상해.

이놈. 아이고 송구 합니다. 4대 독자라 오냐오냐(어린 아이의 투정을 다 받아 주다)했더니만

헌대 넌..

나 왜?

고려에서 태어나 이국 땅에 잠든 이가 있었다. 그대의 먼 조상이다.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

어디가? 그 조상 잘생겼어?

이 놈아!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났는지 면목 없습니다. 나으리.

괘념(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다)치 말아라 그대 가문에 그 누구도 실망스러웠던 적 없으니.

근데 삼촌 왜 자꾸 우리 할아버지한테 반말해? 죽을래?

이 놈아!

★

아이고 나으리. 너무나 늦게 와 송구(죄송)합니다. 소인은 여태 앓았습니다(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 저는 이제 갈 모양 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나으리를 뫼실(모실) 것이 옵니다. 손주 놈 입니다.

이 칼이 나으리예요, 할아버지?

너의 백성의 염원(바람, 소원)이 너를 살리는 구나. 허나 너의 검에는 수천의 피가 묻었다. 너에겐 적이었으나 그 또한 신의 피조물, 홀로 불멸(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함)로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 보아라. 그 어떤 죽음도 잊히지 않으리라. 내가 내리는 상이자 그대가 받는 벌이다. 오직 도깨비 신부 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로 돌아가 평안 하리라.

나으리.

다녀올 곳이 있다.

★

무엄하다 대관절 뭐 하는 자인데 이리도 불경스러운 기운을 내뿜는 것이야? 어허, 이 놈이 그래도!

너는..

내가 늦었구나.

★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네가 내가 받는 첫 번째 벌인 모양이다.

절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셨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어찌 지냈느냐? 안부 한마디 건네지 못하였다. 그래도 그리 해주겠느냐?

★

속도 없이 이런 풍경을 보니 좋습니다.

나는 니가 속도 없이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좋다

자.

전 아직 배가 부르니 나으리 드십시오.

먹은 게 없는 어찌 배가 부를까?

저는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나으리는 크시니 나으리 드십시오.

그럼 이러면 되겠구나.

육지까지 멀었습니다. 나눠 먹어서는 누구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굶겠단 말이냐?

정 배고프면 저는 뱃일을 하고 조금 얻어 먹으면 됩니다.

너를 얻어 먹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 줄 아느냐? 날 믿어라.

나는 네가 생각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일지도 모르니. 어서.

우와.

나으리. 나으리!

그 보따리 좀 봐도 될까?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해서 말이야.

어서 아이를 내려 놓아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 줄 테니.

파도가 수상한 게 암만 봐도 이 배에 부정한 놈이 탄 거 같거든. 바로 네놈은 노예로 팔 거니까 팔다리 성하게(온전하게) 두고 애는 던져 버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면 어찌되는 줄 아느냐? 분노한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도 도 도 도 도깨비다!

살려주세요.

늦었다.

★

속도 없이 돌아 오니 좋구나

살려주세요.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무나라도 제발요. 누구세요?

아무나다.

제발, 제발 저 좀..

글쎄, 인간의 생사에 관여 하지 않는 게 내 원칙이라.

저 이렇게 죽으면 안돼요.

네가 살려 달라는 것이 네가 아니구나.

아이 만이라도..

그대는 운이 좋았다. 마음 약한 신을 만났으니. 오늘 밤은 누가 죽는걸 보는 게 싫어서 말이다.

눈과 비와 꽃이라.

★

도깨비 신부, 도깨비 신부가 태어났어.

★

우리 은탁이 이번 생일에는 떡 뭐 해줄까? 꿀떡? 무지개떡?

엄마, 나 이제 잔치 말고 파티 하면 안돼요?

뭐가 다른데?

떡이 케이크로 달라지죠, 나도 촛불 불고 소원 빌고 싶어요. 떡에다가 소원 비니깐 아무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엄마가 생각을 못 했어. 엄마는 너가 떡 좋아하니깐 떡 했지. 그래 올해부터는 파티하자 케이크 놓고.

우와, 엄마 최고. 어 강아지다.

응? 강아지?

이것 봐라, 봄이 다시 왔다. 신기 하지?

에고 힘들다. 엄마 나 오늘 영어 100점 맞았어요 머리 너무 써서 완전 피곤해요.

그랬어?

우와 케이크다. 엄마, 우리 지금 파티 할 거예요?

응. 얼른 와서 앉아 촛불 켜고.

내가 켜도 돼요?

우리 은탁이 이제 다 커서 할 수 있어.

맞다 나 이제 아홉 살이지. 영어도 100점 맞는데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엄마는 몰라도 돼요. 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 되게 잘 배워요. 전 아무래도 천재..

왜?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한다 우리 강아지.

아니구나?

정말 엄마 아니고 엄마 영혼이구나.

너 정말 다 보이는 구나. 안 그러기를 바랬는데 엄마는.

엄마 죽었어요? 진짜로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는데요?

사거리 병원에 병원에서 연락 올 거야. 가면 이모도 곧 도착 할 거고. 밤에는 추워 목도리 하고 슈퍼 할머니한테 같이 가 달라고 하고, 슈퍼 할머니네 찾아 갈 수 있지?

세탁소 골목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

그래 똑똑해라 우리 강아지. 앞으론 절대 영혼들이랑 눈 마주치지 말고 알았지?

미안해요 엄마 그런 거 봐서요. 근대 그런 거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엄마도 볼 수 있는 거니깐 난 그냥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엄마 봐줘서 고마워. 은탁아, 엄마 엄마 이제 가야 될 거 같애.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 안녕, 엄마 잘 가요. 엄마 꼭 천국 가요. 꼭. 엄마.

여보세요? 지연희 씨 댁인가요? 여기 사거리 제일 병원인데요..

알아요. 갈 거예요. 소원 안 빌 거야. 하나도 안 빌 거야. 아무도 안 들어 주는데 누구한테 빌어.

★

할머니는 어쩜 늙지를 않네.

더 늙을게 어디 있어, 여기서.

그건 또 그렇네. 오다가다 우리 은탁이 좀 들여다 봐주면 안되나?

지랄한다. 니 딸년을 내가 왜?

치, 그냥 오다가다요. 배추도 남으면 좀 주고 시금치도 좀 주고.

그러게 그때 같이 죽지 뭐 하러 더 살아 가지고.

못됐어, 할머니가 알려 줬잖아요, 간절히 빌라고.

그 말을 믿는 년이 다 있네.

그 말 믿은 덕에 좀 더 살다 가요. 고마웠어요 할머니, 인사 하려고 왔지. 저 가요.

★

아저씨 누구세요?

너 내가 보여?

아 목도리, 목도리 안 했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했는데 목도리 여기가 지연희씨 댁이지? 병원에 안 계셔서 왔거든. 근데 넌 어째서 태어나지 못 했을 애가.. 너 혹시 올해 아홉 살 됐니?

아저씨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가, 이 아이는 놔두고.

할머니!

이거 업무 방해예요.

업무 방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언제적 일을 지금에 와서 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하게 됐으니 다행이죠. 저 지금 시간 없어요.

거야 네 사정이고 이 아이가 명부에 있어? 그때 그 아이는 무명 이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이름 있어. 이 아이 이름 적힌 명부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럼 내 내줄 테니깐.

명부계에 협조 받으려면 9년치 증빙 다 올려야 돼요 아실 만한 분이. 또 보자 꼬마야.

할머니 엄마가요..

알어, 그건 할 수 없어. 너나 살어. 얼른 이사 가야 해 3일 안에, 그래야 널 못 찾아. 저승 사자랑 눈이 마주쳐서 여기서는 더 살면 안돼.

이사 가면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래서 집 터가 중요한 거야. 오늘 자정이 지나면 장례식 장에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널 찾아 올 거야. 고 것들 따라가. 고생은 좀 하겠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 넌.

근데 이런 거 왜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뻐서. 너 점지(신이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함) 할 때 행복 했거든. 이거 생일 선물.

★

저기요,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좋죠.

아니 어제까지 잘 되던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삼촌 그 왜 술집에 양복 입으시고 불친절한 남자분들 계시잖아 나 지금 그 사람.. 그 분들과 함께다. 아니 그러니깐 제발 전화 좀 받아. 삼촌 핸드폰 번호 대래서 우리 삼촌 핸드폰 없다니까 나한테 되게 불친절 하셨어. 삼촌 듣고 있어? 삼촌, 삼촌, 삼촌!

쟤는 고3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혼자 먹니.

불쌍하면 같이 먹어 주지 왜?

미쳤냐? 내가 왜 쟤 귀신 본다고.

난 귀신보다 쟤가 더 무서워. 귀신은 눈에 안 보이기라도 하지. 저 봐 다 들리면서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얘, 얘 너 도깨비 신부래매? 너 나 보이잖아. 너 나랑 같이 가자 나 너무 외로워 쓸쓸해서 그래. 어? 야 너 왜 자꾸 나 안 보이는 척 해? 나쁜년아!

아 비쥬얼 진짜.

봐 다 보이면서. 너 정말이구나 미 미 미안 미안했어 미안해!

뭐야 뭔 사과를 앞도 뒤도 없게 해?

★

불도 안 키시고.

생각이 깊었었네.

내세(죽은 뒤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에서 거처하실 곳 입니다.

그새..

네, 그리 됐습니다. 덕화가 벌써 스물다섯인 걸요. 여기 저기 손 좀 보라 일렀으니 이달 말쯤 가시지요. 지금 떠나신다면 제 생전에 다시는 못 뵙게 되겠지요.

모든 순간 고마웠네.

다시 돌아 오셨을 때는 덕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구 이거 내가 자꾸 열쇠를 깜박깜박 해서 신식으로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와 삼촌 여기 있네, 내가 그렇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 했는데 그냥 여기 있었네.

어른들 말씀 중엔 끼어 들지 말라고.

할아버지 내 카드 끊었어? 할아버지가 끊은 거 맞지?

내 비서가 확 끊었다 이놈아.

아 나 지금 완전 개쪽(창피) 당하고 왔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꼬셨는데, 이럴 거면 나 재벌 3세 왜 만들었어? 삼촌 어디가? 어디 가는데?

아 말버릇 좀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

아, 할아버지는 가만 계셔봐. 혹시 그거야? 삼촌 신부 찾는다는 거 그거? 아니 이 사람아 국제 결혼 하러 간다면 간다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 하냐고!

돌아오면 이 아이가 있단 말이지.

삼촌 정확히 몇 날 몇 시 언제 가는데?

★

아침 드세요. 남자 하나에 여자 두 분. 밥 드시라구요.

야 닥쳐 머리 울려, 밥 상 하나 차리면서 유세는.

왠 미역국 오늘 누구 생일이야?

대박, 쟤 지금 지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인 거야.

맞네, 아이고 지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날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걸 챙기고 자빠졌어. 배운 게 없으니 창피한지도 모르지?

엄마한테 배웠네, 얘가 엄마한테서 큰 게 10년 인데?

밥이나 쳐먹어.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이모.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다정도 병이기는 해. 죽은년만 불쌍하지, 기껏 미혼모로 키워놨더니.

그건 좀 너무 말이 심하시구요.

심하긴 뭐가 심해?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한테는 언니거든.

그러니까요, 마음으로나 촌수로나 제가 더 가깝거든요.

엄마, 엄마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거야?

너는 밥이나 쳐 먹어.

너 지금 어디 도망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건데요.

우산 갖고 가면 뒤진다.

학교 끝나고 통장 갖고 은행으로 와. 오늘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한테 통장 없다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 하..

그럼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네 엄마 보험금 어디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모가 다 뺏어 갔잖아요. 전세금까지 다 빼 갔잖아요

아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침부터. 잔말 말고 갖고 와 얻어 터지기 싫으면.

가방에 잘 있던 통장이 은행만 가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누구야?

저년 귀신 들린 거 맞다니까.

그래 네 등뒤에 귀신 붙었다.

뭐? 미친 야!

★

헌데요 나으리 이번에도 혼자 떠나시는지요?

그리 되었네.

내가 만난 그 어떤 여인도 검을 보지 못하니.

전 다행인데요. 검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때는 빨리 신부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이리 뵐 때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허허 그저 인간의 욕심이지요.

나도 다행일세. 자네가 아직 곁에 있고 술도 넉넉 하고. 오늘밤은 일단은 살아 보고 싶네.

짠 할까요?

★

제가 아홉 살 때 이런 거 절대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 거니깐 이해 부탁 드려요. 알바(아르바이트 part time job)도 꼭 구하게 해주시구요 이모네 식구 다 어떻게 해주시구요 저 남자친구도 꼭 좀 생기게 해 주세요. 제발. 알바도 꼭 구하게 해주시구요 이모네 식구 다 어떻게 해주시구요 그지 같은 상황에서 저 좀 어떻게 십 원어치라도 제발. 나 뭐하냐? 누구한테 비냐? 신이 어디 있다고. 설마 여기서 비까지 오는 건가요? 이거 소나기인가요? 장마인가요?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건가요? 우산도 두 개 밖에 없는데 비는 왜 자꾸 오고 난리신데요?

너야?

엄마 깜짝이야.

저요? 저요? 저한테 말 거신 거예요?

어 너. 너야?

뭐가요?

날 불러 낸 게 너냐고?

제가요? 저 안 불렀는데요.

네가 불렀어. 대체 날 어떻게 불러낸 거야?

제가 어떻게요? 저 진짜 안 불렀다니까요.

네가 불렀어 분명. 생각해 어떻게 불렀는지.

절실하게? 제가 부른 게 아니구요, 그냥 제 눈에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리에서 실수로 눈 마주쳐 가지고. 그 아저씨 맞죠?

무슨 말이야 보인다는 게?

아저씨 귀신이잖아요. 제가 귀신을 보거든요.

귀신 아니야.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너 대체 뭐야? 뭔데 보통은 보여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되는데요?

스무 살, 서른 살 너의 미래.

없나 보죠, 미래가.

근데 아저씨는 죽기 전에 뭐 무당이었어요? 아님 사기꾼? 미래 같은 소리 한다.

뭐 뭐 무슨 꾼? 좋은 곳으로 가세요. 오래 떠돌면 안 좋아요. 근데 그 꽃은 뭐예요?

가라면서 왜 말 걸어?

알았어요, 가세요.

메밀 꽃.

그게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들고 있냐구요? 줘봐요. 아저씨랑은 안 어울려요.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줘도 돼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주 우울한 생일. 난 주로 생일날 풀을 받네. 아홉 살 때는 배추 받았거든요. 근데 메밀 꽃은 꽃말이 뭘 까요?

연인.

왜 울고 있었는데, 알바, 이모네 식구, 남자 친구 셋 중에 뭐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들렸어.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 주기도 하거든 내가.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 준다고요? 걔 지니처럼? 뭐 수호신 그런 거?

진짜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 다른 귀신들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 했어요. 진짜 내 수호신이에요?

네 수호신이라고는 안 했어.

울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사전을 갖고 태어난다고, 내 사전에는 아무리 뒤져도 행복, 행운 그런 단어는 코빼기(코)도 안 보이거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겠는데.

한 오백 정도 융통 안되겠냐는 뜻이죠, 현금 융통이 좀 어려우면 이번 주 로또 번호라도 알려 줘라 그런 뜻도 포함이구요.

이모네 식구들한테 작별 인사해. 한동안 못 볼 거다. 닭 집 알바 열심히 하고 붙을 거야.

어, 저기요. 제 남친은요? 여보세요 이보세요? 와 진짜 치사하게 진짜.

★

구면(예전부터 알 고 있는 사이)이네.

그런 면이 있네.

소문은 익히 들어서.

내 소문에는 거품이 좀 많아서. 내 집에는 어쩐 일로?

여기 살아?

이 가구가 다 옵션이라 딱 몸만 들어 오시면.. 언제 들어 왔어 삼촌?

설명해.

아니 삼촌 그게 어차피 20년은 비잖아 여기가 그래서 그 20년이면 세가 얼만가 하는 순수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거거든 나는.

너 저게 뭔지 알고 들인 거야? 너 저거..

세입자님에게 저거 라니! 찻집 하신 댔어. 죄송해요 우리 삼촌이 사회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커피 드세요.

아직 돈 안 받았어. 마당에 새 차 있던데?

세입자님 차야.

내 차 아닌데? 돈은 이미 다 줬고.

그렇게 된 사연이므로 돈을 돌려 줄 테니 그만 나가 주지?

그렇게 된 사연은 알겠으나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중요한 서류는 아니었기를 바래.

방금 건 복사본, 원본은 부동산에, 짐은 내일 들어 올 거야, 손 없는 날(한국전통 민속 신앙: 악귀없는 날 이라는 뜻으로 주요 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 이사, 결혼 등)이 거든.

다 마셨으면 가. 내가 온정을 베푸는 건 커피 까지야.

들어가서 짐이나 싸. 20년치 짐이면 지금부터 싸도 늦어.

도깨비와 얼굴 붉히는 우(어리석음)를 범해 보시겠다?

사자(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와의 계약이 어떤 건지 잘 알 텐데.

이 집 대신 방금 나간 그 친구 데려가도..

할 수 없네. 빈 방 많으니까 써, 내 집이다 생각 하고.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도깨비 터에서 도깨비를 쫓아 낼 수 있으면 어디 한 번 파이팅.

★

야만적(savage)이기에 이를 때가 없군.

소문으로만 듣던 상스러운(vulgar) 식단이네.

아 실수. 내 거에 뿌린다는 게 그만..

아 나도 실수. 너한테 뿌린다는 게.

너?

아까 호칭 정리 된 거 아니었나? 이거, 저거, 야, 너.

★

연인, 치, 연인은 무슨.

★

TEXT ON THE SCREEN

함께 할 식구 모집

시간: 월~금 18:00 – 22:00

시급: 6,200

업무: 홀 서빙, 정리, 주방 보조 (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밝고 긍정적인 분 환영!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신가요? 아 저는 지은탁이라고 하구요.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어서..

엄청 밝고 긍정적이어서.. 성격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어서.. 엄청 밝고 긍정적이어서.. 밝고 긍정적이어서 어떤 궂은 일도 시켜만 주신다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궂은 일에도..

알바를 붙긴 개뿔, 수호신? 아나 이 양반이.. 전화번호라도 딸 걸.

거봐 너야.

아 깜짝아! 아 왜 자꾸 쫓아 다녀요?

쫓아 다닌 게 아니라 네가 또 부른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재주가 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죠. 내가 무슨 수로? 뭐 방울 흔들어 불러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저씨가 자꾸 우기니깐 그렇죠, 내가 안 불렀다니까! 그나저나 아저씨 진짜 수호신 맞아요? 종류가 뭔데요? 망신? 근신? 내신? 당신? 아저씨가 말한 닭 집이 혹시 양계장인가요? 양계장 알바?

아니야.

그럼 어디인데요?

괜히 이루어 질 것처럼 사람 기대 하게 하고.

너 진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아니에요. 내가 안 불렀어요.

너야 너라고, 너 맞아. 한번도 이런 적 없었어.

진짜 나예요? 정말? 진짜 그런 거면 나 대체 뭐지? 아 뭔지 알았다.

뭔데?

나한테 보이는 거 다 말해 봐요.

교복 입었네.

또?

이쁘네. 교복이.

그게 다예요? 날개 이런 건 안 보이나? 나 아무래도 요정인가 봐요. 팅커벨. 에이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아 전화번호 아이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합시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당신께 한 걸음 정도 다가가고자 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알았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무서워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던데.

아부 하지마. 신이 어디 있냐며.

어디 계신가 해서 한 번 와 봤죠.

왜 불꽃으로 화르륵 안 가고 걸어 가요?

여기서 안돼. 일종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같은 거라고 생각 하면 돼. 따라오지 말고.

제 소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 개 중에 세 개가 해결 안됐잖아요.

이모는 곧 해결 할거야, 알바도.

말구요 남자친구.

그건 너도 노력을 좀 해.

와아,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될 텐데? 이제 방법을 안다고 내가, 전번 딱 딴 거지. 오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해?

엇 잠깐만요.

나 붙잡은 거야, 지금?

아 더는 안되겠다, 아 뜨거워.

파랗길래 차가울 줄 알았어요.

본디 파란 불 온도가 제일 높다, 문과생. 이럴 시간에 공부 좀 해.

내가 조실부모(어려서 부모를 잃음)하고 사고무탁(아무리 둘러 보아도 몸과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음)하면서도 1등을 안 놓친.. 됐고요, 저기 수호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저 오백 해주시고 치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일이 있어서 가야 되거든.

무슨 일이요? 아 옷이 좀 경건 하네요.

내일이 아는 이의 기일이야.

근데 왜 오늘부터 가요? 지방이에요?

그곳은 오늘이 내일이야.

언제 오는 데요? 내일? 모레? 저 꼭 물어 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 빨리 해.

이런 질문 이상하게 들릴 거 아는데 오해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 해요

알았으니까 해, 뭐.

처음에는 아저씨가 저승사자인가 했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면 절 보자마자 데려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귀신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죠 대체 저 아저씨는 뭘까?

그래서 뭔데 내가?

도깨비요. 아저씨 혹시 도깨비 아니에요?

너 뭐야? 너 대체 뭐야?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한데 전 도깨비 신부거든요. 제가 귀신 보는 건 아시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귀신들이 나한테 도깨비 신부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증명해봐.

제가 도깨비 신부라는 걸 증명해 보라구요?

어.

어떻게요? 뭐 훨훨 날아요? 아님 빗자루로 변해요?

해봐.

저 지금 되게 진지하거든요.

나도. 나한테 보이는 거 말해봐.

복수 하시는 거예요? 말 해봐 보이는 거 다.

키가 크시네요.

또?

옷이 비싸 보여요.

한 30대 중반.

또?

설마 뭐 잘생겼다, 이런 대답 원하는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답은 네가 갖고 있었어야지. 나한테 보이는 게 그게 다라면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야. 도깨비에게 넌 효용 가치가 없거든. 귀신이 보이는 건 안됐지만, 어차피 덤으로 살아가는 목숨이니 감사히 살아. 넌 그저 원칙을 어기고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 생긴 부작용 같은 거니깐.

내가 감수 하기 싫다면요?

그냥 원래 명대로 죽는 방법도 있어.

말을 참.. 알겠구요. 아까 한 질문 다시 할게요. 아저씨 혹시 도깨비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뭔데? 대체 뭔데 내가 가치 있고 없고를 아저씨가 판단 하는데요?

십 원어치 나아지고 싶다며? 네 거지 같은 상황을 십 원어치 정도 걱정 하는 사람, 현실에 살라고 소문에 살지 말고.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니깐.

잠깐만요, 저 얘기 아직 안 끝났..

너 지금 저 문으로 들어 온 거야? 나 따라서? 어 어떻게 들어왔어?

손잡이를 잡는다, 민다, 아저씨를 따라.. 근데 여기 왜이래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 저 문 어떻게 통과한 거야 대체?

아 파주인가? 영어 마을 거기? 음 근데 거기라도 이상하지 여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대체?

캐나다.

캐나다요? 캐나다면? 그 단풍국? 그 막 오로라 거기? 여기 여기 진짜 외국이에요? 대박! 아저씨 이런 능력도 있었어요?

너도 있네 너 진짜 뭐지?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 했어요.

뭘?

마음 먹었어요, 제가.

뭐, 뭘?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 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거 같거든요. 사랑해요.